

# “인격까지 담아내야 진짜춤”

## 산문박의 禪

태평무 인간문화재 강선영 씨

“처음에는 내가 춤을 추지만  
어느새 춤에 내가 들어가 있다  
잘났다는 생각도 성취감도 사라지고  
평정한 마음만 남은 채...”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볼 듯 날아가며 사뿐이 걸어 올린  
외씨녀선이여 (조지훈 '승무')  
금박이 화려한 스란치마가 살짝 들  
리더니 하얀 버선코가 섬세하면서도  
빠른 동작으로 흥겹게 움직인다. 우아  
한 고개짓에 따라 머리에 꽂은 떨잠들  
이 파르르 감박이다. 호흡의 흐름을 따  
라 어깨동작으로 전해지는 몸놀림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원삼의 긴 소매가  
하늘을 덮을듯 휘감긴다.

로 하는 공연은 말할 것도 없고 전수  
생들과 교육을 겸해 함께 어울려 추는  
춤도 즐겁고, 호젓하게 혼자 추는 춤도  
즐겁다. 음악에 맞춰 동식동식 움직이  
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춤을 추지만  
점점 고조돼 어느 시점에선가 춤의 한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 있다.

춤인생 60년의 강선영씨가 말하는  
성공한 무대는 보는 관객들도 같이 몰  
입해 함께 어울려 춤을 추는 듯한 무  
대다. 춤이아말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  
인 몸짓이며 인간의 희로애락을 적나  
라하게 나타내는 몸짓이며 그 어느 것

60년을 춤과 함께 살아온 강선영씨  
(72,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태평무 기

## 맺고 풀고 어르고 당기며 절제된 '우리 춤추기' 60년 같은 동작 수만번 되풀이 '무아지경' 될 때 관객 감흥

능보유자)는 이제는 춤이 편안한 옷과  
같은 느낌이다.  
“태평무는 태평성대를 살던 왕비가  
추는 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우아하기 이를데 없지요. 의상자  
체가 화려하기도 하지만 춤추는 자세가  
전 아하고 절제된 동작의미를 추구하면  
서 풀고 맺음이 분명하여 보는 이에  
따라 감응의 폭이 아주 넓은 춤이 바  
로 태평무입니다.”  
한국춤의 특징은 긴장과 이완을 적  
절히 배합하여 맺고 풀고 어르고 당  
기며 특히 정중동(靜中動)에 그 묘미  
가 있다. 화려한 공중폭에 발디딤의  
기교가 돋보이며 손놀림이 섬세하면  
서도 절도가 있는 태평무는 우리 전  
통춤의 흥과 멋을 잘 살려주고 있는  
춤이다. 강씨는 “태평무에 맞다면  
다른 춤은 심경하는 느낌까지 들 정  
도”라며 태평무의 매력에 한마디로  
평한다.  
고회를 넘겼지만 지금도 일주일에  
두 세번은 춤사위를 펼친다. 정기적으

보다 감응이 빠른 예술이기 때문이다.  
눈에는 안 보이나 선연한 움직임들  
그 깊이 짚 수 없는 속 쌓여가고 있었  
다 (김원각 '靜夜')  
강씨는 13세때 유명한 한성준씨의  
문하에 들어가 춤을 본격적으로 배우  
기 시작한다. 한성준씨는 1920년대 산  
재해 있던 우리춤을 집대성하여 민속  
무용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 무용  
문화의 전통계승의미를 실천적으로 일  
게운 선각자다.  
어렸을 때부터 보기만 해도 그대로  
적절 따라 해 일찌감치 소질을 인정받  
은 강씨는 15세에 이미 일본공연에 나  
섰고 서울 부민관에서 첫무대까지 가  
졌다. 당대 최고 명고수이기도 했던 스  
승 한성준 선생이 직접 만든 창작무로  
생전에 가장 아꼈던 춤이 바로 태평무  
다. 태평무를 이어가는 것이 강선영씨  
는 자랑스럽고 또한 책임감도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의 제자들에 대한 선별  
안은 몹시 까다롭다. 춤에 있어서 그는  
그저없이 엄격한 스승이다.

절제되면서도 자연스런 하나의 몸짓,  
손짓, 발짓을 내기위해 수만번의 같은  
동작을 되풀이해야 한다. 가나진 인고  
의 연습을 통해야만 춤의 자기화가 이  
뤄지는 법.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사람됨됨  
이가 먼저입니다. 인격과 개성이 그대  
로 드러나는 것이 예술입니다. 표피적  
인 기교만 뛰어나면 보는 사람들을 감  
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춤을 위  
해 파나는 연습을 해야겠지만 아울러  
사람다운 사람,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수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는 방법으로 그는  
곧잘 염주를 돌리며 ‘관세음보살’을  
찾는다. 화가 나가나 탐욕의 마음이 일  
때, 마음이 생길 때 염주를 돌리다보면  
춤 때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자기를  
잊고, 주위를 잊고, 잘났다는 생각, 성  
취감까지도 놓아버린다.  
무아지경에서 오로지 춤추는 자체에  
만 집중하는 오롯한 그 마음, 그 마음

을 헤아리노라면 어느새 흔들림은 접  
혀지고 평정을 되찾는 것이다.  
누구는 종이 위에 시를 쓰고  
누구는 사람기슭에 시를 쓰고  
누구는 지워없는 허공에 대고 시를 쓴  
다지만  
나는 심이월의 눈 위에 시를 쓴다  
눈이 녹아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나의 시 (류시화 '눈위에 쓴 시')  
“수많은 움직임은 하나의 움직임으  
로 집중시켜 완결시킨 경지로, 춤 한가  
락은 모든 삶을 응축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손짓 하나, 발짓 하나라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살아있는 춤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대에 오를 것이 수백번도 넘지만  
공연을 앞두고는 아직도 첫공연처럼  
실레임과 흥분으로 밤을 지샌다는 노  
(老)대가는 좀더 완벽한 춤추기가 소  
원이다.  
이경숙 기자

### 지장보살님처럼 되고싶어요

문 불자가 된지 오래입니다만 아직까지  
도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 열심히 지장보살님을 찾는데 그  
때마다 마음이 아리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감히 지장보살님처럼 될 수만 있다면 하여  
지도 모르게 발원을 하게 됩니다. 가르침 바  
랍니다. (전미순·부산 동구 초량동)

답 지장보살님이다, 아미타불이다, 약사  
여래다, 이 모두가 다 이름일 뿐입니다.  
편한대로 다른 이름을 붙여도 관계없습니  
다. 그런 뜻을 모르고 만약에 지장보살님이라  
고 위대하게만 보아 의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밖으로 찾는 결과가 되어 망명이 됩니다. 진  
정으로 지장보살이라 함은 내 마음속 무명의  
공은 땅에 파묻혀 있는 보배인 불성을 말하  
는 것인줄 알아야 합니다.

지장보살, 아미타불이 다 이름이라 하는 까  
닭은 불성인즉 그런 이름만 가진게 아니라  
그 슬한 보살님, 부처님의 명호를 다 가졌기  
에 따로 지장보살이라고만 하지 않음을 의미  
합니다.

그러기에 지장보살님을 따로 떼어놓고 명호

부처님께서는 형상의 나를 따르지 말라 하  
셨습니다. 이 스님이 석존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왔다할지라도 나를 믿으라 한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께 밖으로 구하라는 게 됩니다.  
그러나 천상에 있다해도 그렇고 없다해도  
그렇고 이 스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왜 거기에 끼어들까.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은 부처님도, 천상도,  
교주도 그대가 없다면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  
자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 가르  
침의 뜻도 알게 되고 그 교주의 말도 알게  
됩니다.

지금 석존께서 앞에 나타난다 해도 나는  
천상에 있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따르라' 그렇게는 말하지 못합니다. 상  
대가 눈을 찢던 못찢던 간에 진리에 눈을 끼  
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놓는다”는 생각에 매여 있어요

문 스님께서 ‘길은 묻는 이에게’ 난을  
통해 ‘놓아라’ 하시는 법문을 하신 것  
을 접하고 다가오는 경계를 놓으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주 놓는다고 하디보니까  
막상 놓아지지 보다는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

### 지 상 상 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  
히 신빙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  
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문선원 대령스님께 문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를 원다면 이미 거기엔 형상의 뜻이 불으니  
결과적으로 밖으로 찾는 일이 되고 맙니다.

불성은 모두의 근본진리인 동시에 제불보  
살의 명호를 다 아우릅니다. 이와같이 모두는  
다 하나로 결합되어 한군데로 들고 나니 이  
를 종합해서 주인공! 했던 것입니다. 밖으로  
만 찾지 않는다면 이름을 무이라 하는 관계  
없습니다.

### 모 교주가 천상구원을 주장하는데

문 저는 얼마전까지만해도 한국에서 시  
작된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 거기서  
가르침을 하늘은 9천으로 되어있는데 부처  
님과 보살님은 7천에 계시고 그 교의 교주님  
은 구원에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해준다고 하  
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상근·인천 서구 가좌동)

답 그분이 지금 천상에 있다고 하면 이  
미 없는 것입니다. 천상이 천상이 아니  
고 대지가 대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라든 어디부터가 하늘입니까. 하늘  
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한다  
면 그런 사람은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또 무슨 구원입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기령 지식  
이 물에 빠졌다면 어이쿠 하고 그냥 뛰어들  
어 건질뿐이지 구할까 말까 하지도 않을 것  
이고 구해준다 아니다도 불지를 않습니다. 그  
런 말이 붙는다면 벌써 빛나간 것이고 아무  
리 강조해보았자 구차한 변명이 불과합니다.

아 합니까? (서동열·서울 은평구 녹번동)

답 참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줄 압니다. 어떤 분은 내  
게 ‘스님 다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살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문합니다. ‘왜  
놓는다면 그 놓는다는 생각을 붙들고 계십  
니까?’ 그 놓는다는 생각까지도 놓을 수 없  
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놓는 게 아니지요. 실은 듣고 있다, 놓고 간다  
도 없습니다. 그냥 한 생각 일어났다가 사라  
지면 그뿐인데 그걸 기억하고 그 생각에 걸려  
서 움직임을 못하니가 놓이라고 하는 것입  
니다. 알고보면 그냥 놓고 가면서도 얽매어  
있으니 한쌍과 풀을 달고 돌리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사께서 부처님 나오심이 평  
지에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죽어서 깨어게나 던져주리라 하셨  
다는데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는 이 생활이  
그냥 놓고 감인데 거기에 연직적이고 끈적적으  
니 이리 걸리고 저리 붙어있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찰나찰나  
의 생활이 실은 그대로 놓고가는 삶입니다.  
자신이 그때그때 아버지가 되었다가 남편이  
되었다가 하는게 놓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하니가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  
다. 놓으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붙든다는 것도 없고 놓는다는 것도 없습니  
다. 그냥 발걸음 그대로이면 굳이 놓는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를 못하니가 놓으  
고 하는 것입니다.

# 법련사

## 대웅보전 ‘삼세여래상(三世如來像)’ 점안식 및 7일간 특별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법자년 새봄을 맞이하여 두루 청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 정도 6백년만에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 동문 바로  
앞에 부처님의 정법(正法)을 선양하는 수행과 포교의 도량이자  
정신문화 창달의 전당이 될 수 있는 법련사 영산 대법전(靈山  
大法殿)을 장엄하게 건립하였습니다.  
이는 불교를 생활화하고 전통문화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값진 문화유산이요, 대법전(大福田)이 되기를 염원하  
면서 이룩한 대작불사(大作佛事)이기에 더욱 뜻깊은 일이라  
안 할 수 없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거나 하면 환희에 찬 심경(心境)인 것처럼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이룩한 영산대법전이기에 더욱 뜻깊고, 기쁜  
마음 다 헤아릴 수가 없나봅니다.  
이 기쁜 마음을 인연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진리의 법등  
(法燈)이 체계승승되기를 발원하면서 대웅보전에 봉안할 삼세  
여래(三世如來)인 과거 연등불과 현재 석가모니불, 미래 미륵불  
을 조성하여, 그 점안법요식과 함께 7일간 특별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라옵나니, 이 불사에 수회동참한 모든 이들은 무무 동참하  
시어 소원성취는 물론 수승한 법연(法緣)을 맺으시길 합장하  
나이다.



조계종림 서울본원 우 110-190  
대현불교 조계종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20-1  
승보종찰 송광사 법련사 ☎(02) 733-5322,

조계종림 방장 廻光 송광사 주지 玄果 합장  
법련사 회주 玄虎 서울불입회 회장 趙達空

### 삼세여래상(三世如來像)점안법요식

- 일 시 : 1996년 4월 25일(음3.8) 오전10시
- 증 명 : 月下 스님(조계종 종정, 영축총림 방장)  
普珠 스님(조계종 원로, 철보사 조실)  
慧菴 스님(조계종 원로의장, 혜인총림 방장)  
廻光 스님(조계종 원로, 조계총림 방장)  
圓澤 스님(조계종 원로, 덕숭총림 방장)  
日陀 스님(조계종 원로, 전계대회상)  
道堅 스님(조계종 원로, 해인사 선덕)
- 법 주 : 雲靖 스님(조계종 종회의장)  
世敏 스님(수안사 주지)

### 7일간 특별법회 안내

- 일 시 : 1996년 4월 26일(음3.9)~5월 2일(음3.15)  
기도법회 : 매일 오전 10시  
설 법 회 : 매일 오전 11시
- 설법주제 : “부처님은 누구신가”
- 7일간 특별법회 일표

일시	법사	비고
제1일 4월 26일(음3.9)	月下 스님	전 종회의장, 전 법주사 주지
제2일 27일(음3.10)	無比 스님	법이사 강주
제3일 28일(음3.11)	岩度 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제4일 29일(음3.12)	顯印 스님	제주도 약천사 주지
제5일 30일(음3.13)	玄海 스님	원정사 주지
제6일 5월 1일(음3.14)	泰應 스님	불교TV이사장, 전 통도사 주지
제7일 2일(음3.15)	雲靖 스님	종회의장, 전 수석사 주지